KIMEE
한/국/의/학/교/육/평/가/원
KOREAN INSTITUTE OF MEDICAL EDUCATION AND EVALUATION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뉴스레터

22호
2012.12.31

HEAD LINE NEWS

2012년 의평원 심포지엄 개최

본원은 <의학교육의 수월성 : Excellence in Medical Education>을 제목으로 2012한국의학교육평가원 심포지엄을 2012년 12월 13일(목) 14:00, 중앙대학교병원 동교홀에서 개최하였다.
김명곤 간사의 사회로 시작한 본 행사에서는 먼저 임기영 의학교육인증단장의 2주기 기본의학평가 종합 설명이 있었고, 2주기 평가인증 우수 사례로 선정된 인제의대의 이병두 학장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아울러 기본의학교육 수월성 국제공조 ASPIRE'를 제목으로 안덕선 원장의 발표와, 동국대 김성훈 교수의 2주기 메타평가 연구 결과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특별히 금년 심포지엄에서는 영국 General Medical Council(GMC)의 졸업후의학교육 위원장인 Jim McKillop 교수가 특별 초청되어 'Establishing and Ensuring Standards in Undergraduate Medical Education - in UK Approach'를 제목으로 한 강연과 질의응답 시간이 ...

+ 더보기

KIMEE NEWS

2012 의학교육 평가인증

올해의 의학교육 평가인증 대상 대학은 총 6개 대학으로 고려의대, 서울의대, 성균관의대, 울산의대, 을지의대, 인하의전원이다. 현재 서면·현지방문평가를 마치고 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인증 결과 외부공시를 앞두고 있으며, 평가인증 결과는 판정 30일 이후 공개될 예정이다.

대외협력

한국의학교육평가원-대한의학회 좌담회

본원은 2012년 12월 13일(목) 10:00, 팔래스호텔 다봉에서 대한의학회와의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의평원장, 인증단 제도위원장, 졸업후교육발전위원, 대한의학회장, 수련교육, 의학교육 이사가 참석하고 영국 General Medical ..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기부금 모집안내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는 의학교육 발전을 위한 모든 기부금을 기부받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2012년 3월 30일 기획재정부 공고

교육 관련 소식

의사의 사회적 역량 강화 심포지엄 개최 안내

의평원 연구활동

<의학연수교육기관 인증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제출

의평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kimee.or.kr

의평원에 문의하기

02-795-1591
e-mail : kimee@kimee.or.kr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뉴스레터는 제 19호부터 지면이 아닌 웹진으로만 발행을 하여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본원 사무국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2-795-1591, kimee@kimee.or.kr)

의평원 소식

- 의학교육 평가인증
- 대외협력
- 사무국
- 교육 관련 소식
- 의평원 연구활동
- 기고

의학교육 평가인증

2012 의학교육 평가인증

올해의 의학교육 평가인증 대상 대학은 총 6개 대학으로 고려의대, 서울의대, 성균관의대, 울산의대, 을지의대, 인하의전원이다. 현재 서면·현지방문 평가를 마치고 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인증 결과 외부공시를 앞두고 있으며, 평가인증 결과는 판정 30일 이후 공개될 예정이다.
2012년 의학교육 평가인증 경과는 아래와 같다.

*** 2012년 의학교육 평가인증**

일 정	세부 내용
2012년 2월 21일	2012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설명회
2012년 2~8월	자체평가연구 수행
2012년 8월 31일	자체평가연구보고서 접수
2012년 9월 6일	서면.현지방문평가를 위한 평가단 워크숍
2012년 9~11월	자체평가연구보고서에 대한 서면 평가
2012년 11월	현지방문평가 실시
2012년 11월	최종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검토
2012년 12월 18일	판정위원회 개최
2013년 1월	결과 통보 및 최종평가 결과보고서 송부
2013년 1월	평가인증 결과 외부공시
2013년 2월	2012년 인증서 전달식 및 기자간담회

* 2012년 의학교육 평가인증 현지방문평가 현장스케치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현황
2012.11.14
기획실장 조양선

2012년 의학교육 평가인증 현지방문평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2012.11.20 ~ 11.23

BD Angiocath Plus

2012년 의학교육 평가인증 단장단 회의

본원 의학교육인증단(단장 임기영)은 2012년 12월 3일(월) 18:00, 서울역 그릴에서 2012년 의학교육 평가인증 단장단 회의를 개최하였다. 본 회의에서는 2012년 평가인증 대상 6개 대학의 서면·현지방문평가를 완료하고 결과를 되짚으며 평가단별 결과 오차를 축소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2012년 의학교육 평가인증 판정위원회

본원 의학교육인증단은 2012년 6개 대학의 서면·현지방문평가를 완료하고 평가인증규정에 따라 최종평가보고서를 피평가대학에 송부하여 검토 의견을 접수하였다. 그리고 방문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따라 2012년 12월 18일(화) 18:00, 팔래스호텔 서궁에서 2012년 판정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판정위원회는 인증단 및 의료계 대표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표 및 언론계, 학생대표 등이 참석하여 평가인증 결과를 심의·판정하였다.

* 2012년 의학교육 평가인증 판정위원회

제2013-1차 의학교육인증단 운영위원회(예정)

본원 의학교육인증단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2013년 1월 4일(금) 16:00, 의평원 회의실에서 제2013-1차 의학교육인증단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본 회의에서는 2012년 평가인증 결과와 최종평가보고서 관련 건에 대한 논의도 있을 예정이다.

대외협력

한국의학교육평가원-대한의학회 좌담회

본원은 2012년 12월 13일(목) 10:00, 팔래스호텔 다봉에서 대한의학회와의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의평원장, 인증단 제도위원장, 졸업후교육발전위원, 대한의학회장, 수련교육, 의학교육 이사가 참석하고 영국 General Medical Council(GMC)의 졸업후의학교육위원장인 Dr. Jim McKillop이 참석한 본 좌담회에서는 한국과 영국의 졸업후의학교육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

사무국

제3-007차 실행위원회, 제3-008차 실행위원회 개최예정

본원 제3-007차 실행위원회가 2012년 10월 12일(금) 12:00, 팔래스호텔 다봉에서 개최되었다. 본 회의에서는 2012년 9월까지의 회무 및 재무사항을 검토하고 의평원 감사 선임의 건, 의평원 제규정 일부 개정의 건, 사무국 전용공간 마련 건으로 논의가 있었다. 아울러 차기 실행위원회는 2013년 2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제2012-3차 한국의학교육협의회

본원은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 사무국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2년 10월 18일(목) 07:00, 팔래스호텔 다봉에서 제2012-3차 한국의학교육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노환규 회장(대한의사협회 회장)의 주재로 개최된 본 회의에서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대한 대책, 전공의 정원 및 수련실태, 인턴제 폐지로 인한 의과대학 임상교육 개선 건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제13차 이사회, 2012년 정기 감사 및 제14차 이사회 개최예정

본원 제13차 정기 이사회가 2012년 10월 19일(금) 07:00, 팔래스호텔 다봉에서 재적이사 21인 중 14인이 참석한 가운데 이윤성 이사장 주재로 개최되었다. 본 이사회에서는 노환규(대한의사협회) 이사 외 12인을 신임 이사로 선임하였고, 2012년 회무사항을 보고하고 감사 선임 건, 사무국 전용공간 마련 건으로 논의가 있었다. 또한 정명현 전 감사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원장으로 취임함에 따라 당연직 이사로 선임되고,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대한의학회 회장을 역임한 고윤웅 전 회장을 감사로 선임키로 의결하였다.
본원 2012년도 정기 감사 및 제14차 정기 이사회는 2013년 2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2012년 의평원 심포지엄

본원은 <의학교육의 수월성 : Excellence in Medical Education>을 제목으로 2012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심포지엄을 2012년 12월 13일(목) 14:00, 중앙대학교병원 동교홀에서 개최하였다.
김명곤 간사의 사회로 시작한 본 행사에서는 먼저 임기영 의학교육인증단장의 2주기 기본의학평가 종합 설명이 있었고, 2주기 평가인증 우수 사례로 선정된 인제의대의 이병두 학장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아울러 '기본의학교육 수월성 국제공조 ASPIRE'를 제목으로 안덕선 원장의 발표와, 동국대 김성훈 교수의 2주기 메타평가 연구 결과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특별히 금년 심포지엄에서는 영국 General Medical Council(GMC)의 졸업후의학교육 위원장인 Jim McKillop 교수가 특별 초청되어 'Establishing and Ensuring Standards in Undergraduate Medical Education - in UK Approach'를 제목으로 한 강연과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다.

의학교육의 수월성 : Excellence in Medical Education
Establishing and Ensuring
Standards of Undergraduate
Medical Education –
the UK Approach
Professor Jim McKillop,
Chair, GMC Undergraduate Board

大韓病院協會
會長
金潤秀
慶祝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졸업후교육발전위원회 집중워크숍(예정)

본원 졸업후교육발전위원회는 2013년 2월 1일(금)부터 2일(토)까지 1박 2일간 모항 해나루 호텔에서 집중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본 워크숍에서는 교육자로서의 전공의(Resident-as-Teacher, R-a-T)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연구계획을 진행하고, 의사단체의 현대화 국제 사례에 대한 발표 및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의평원 사무국 이전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사무국이 2012년 12월 10일자로 이전하여 다음과 같이 주소가 변경되었습니다. 본원 사무국 이전을 축하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서울 종로구 대학로1길 10 연지드림빌 203호 한국의학교육평가원 (110-470)
• 종로5가역 1번출구에서 우회전, 연지드림빌(1층 연지동 순두부 건물)

의평원 기부금 모집안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는 의학교육 발전을 위한 모든 기부금을 기부받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사목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2012년 3월 30일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2-70호를 통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리며, 기부하신 기부금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의학교육 발전 사업 등 본원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해서 쓰이며, 법인 및 개인 누구나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에 대한 예산운영 및 지출 등 제반 사항은 홈페이지(www.kimee.or.kr)에 모두 게재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원 사무국(02-795-1591, kimee@kimee.or.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은행 **615-000310-01-166, (재)한국의학교육평가원**

TOP ^

교육관련 소식

전공의 교육 심포지엄(대전협)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주최하고 본원과 한국의학교육학회가 후원한 전공의교육 심포지엄이 <새로운 전공의 교육을 위한 심포지엄>을 제목으로 2012년 11월 24일(토) 13:30, 대한의사협회 동아홀에서 개최되었다. 본 행사에서 안덕선 원장은 '선진국의 전공의 교육'을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의사의 사회적 역량강화 심포지엄

본원은 한국의학교육학회,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와 함께 2013년 1월18일(금)~19일(토),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종합관 331호, 337호에서 '의사의 사회적 역량과 전문직 단체의 역할'과 '전공의의 사회적 역량'을 주제로 <의사의 사회적 역량 강화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본 행사에서는 전공의 교육을 주제로 토론이 있을 예정이며, 특히 캐나다 왕립의학회(Royal College of Physicians and Surgeons in Canada)에서 전공의 교육을 담당하는 Dr. Viren Naik과 Dr. Susan Brien, 캐나다 의학회장인 Dr. Andrew Padmos를 초청하여 CanMEDS와 전공의 교육 평가인증 등을 주제로 강연과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프로그램(안)

<의사의 사회적 역량 강화 심포지엄 - Day 1.>

의사의 사회적 역량과 전문직 단체의 역할

- 일 시 : 2013년 1월 18일(금) 13:30
- 장 소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종합관 331호

* 사회·좌장 : 김재중 교수 울산의대

13:30 - 13:45	Resistration	
13:45 - 14:00	Opening Remarks	김윤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김동익 회장 대한의학회 이정애 부회장 한국의학교육학회 Dr. Andrew Padmos 캐나다 의학회
14:00 - 14:45	A Brief History of the Royal College of Physicians Surgeons Canada: Where We Have Been and Where We Are Going	Dr. Andrew Padmos
14:45 - 15:30	A Beginner's Guide to CanMEDS	Dr. Susan Brien
15:30 - 16:15	Competency Based Education: Times are Changing	Dr. Viren Naik
16:15 - 16:45	Coffee Break	

좌장 : 안덕선 원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

16:45 - 17:45	International Education Leadership: Royal College Canada International	Dr. Andrew Padmos Dr. Susan Brie Dr. Viren Naik
17:45 - 18:00	Discussion / Wrap-Up	

※ 상기 프로그램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의사의 사회적 역량 강화 심포지엄 - Day 2.>

전공의의 사회적 역량

- 일 시 : 2013년 1월 19일(토) 08:30
- 장 소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종합관 337호

* 사회·좌장 : 김영창 교수 순천향의대

<1부>

08:30 - 09:00	Resistration	경문배 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09:00 - 09:10	Opening Remark	권복규 교수 이화여대
09:10 - 09:45	의사의 사회적 역량 강화 연구 소개 대한전공의협의회 발표	노경한 이사 대한전공의협의회
09:45 - 10:30	Residency Accreditation in Canada through CanMEDS	Dr. Andrew Padmos
10:30 - 11:00	Coffee Break	
11:00 - 12:00	CanMEDS 201: The Next Level	Dr. Susan Brien
12:00 - 12:30	Questions / Discussion	
12:30 - 13:30	Lunch	

* 사회·좌장 : 한재진 교수 이화의대

<2부>

13:30 - 14:15	Teaching Residents to Teach	Dr. Susan Brien
14:15 - 15:00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with Simulation	Dr. Viren Naik
15:00 - 15:30	Coffee Break	
15:30 - 16:15	Assessment "For Learning" & "Of Learning"	Dr. Viren Naik
16:15 - 17:00	Lifelong Learning: We Are All Teachers and Students	Dr. Viren Naik Dr. Susan Brien
17:00 - 17:30	Questions / Discussion	
17:30 -	Closing Remarks	

안덕선 원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

※ 상기 프로그램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의평원 연구활동

<의사연수교육기관 인증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제출

본원은 2012년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과제로 진행한 <의사연수교육기관 인증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사업을 종료하고 2012년 10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세계의사회는 의학교육의 국제적인 기준을 기본의학교육, 졸업후의학교육, 평생교육의 세 분야로 분류하고 있으며 연수교육의 목적은 설정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의사연수교육들이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는 파악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민보건의료와 의사연수교육을 포함한 전문직업

성 평생교육의 국내외 현황을 파악하고, 질 향상을 위해 의사연수교육의 인증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보고서는 의료정책연구소의 검독과정 등을 마친 뒤 공개될 예정이다.

기고

호주-뉴질랜드의 전공의 & 펠로우 수련 프로그램 평가 참관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병리과 교수 김애리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멜버른에서 시행한 Australian Medical Council(AMC) 주관 호주-뉴질랜드 마취과 및 통증의학회(Australian and New Zealand College of Anaesthetists, ANZCA)의 전공의 및 펠로우 수련 프로그램 평가를 참관하였다.

처음 학회평가 참관을 추천 받았을 때, 내가 속한 전문 분야는 병리학이었기 때문에 이왕이면 병리학회를 심사하는 과정을 참관하였으면 어떨까하는 욕심도 있었으나 전공의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원칙은 학회에 상관없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과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혔다.

내가 멜버른에 도착한 10월 14일(일) 저녁에 평가팀에 합류하여 의외였던 것은 평가팀의 구성원에 마취통증 전공 교수들은 한 명도 없고, 신경과, 혈관외과, 소아안과 전문의과 일반의로서 산부인과 환자만을 보는 Gynecologic general practitioner,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미 지난 2주 동안 각자 호주와 뉴질랜드에 위치한 여러 병원들의 마취통증의학과를 방문평가를 마친 상태였다. 이와 같이 다른 전공분야의 전문의들이 교차평가를 하면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회 내 편의주의적인 교육이나 진료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물론 각 학회도 우리나라와 같이 각 의료기관의 전문과를 방문하여 평가하고 관리하는 제도는 가지고 있다고 한다. 어쨌든 이렇게 긴 시간을 투자하여 전공의 교육에 대해 평가를 자세히 하는 것은 현시대와 미래의 환자 진료를 위하여 고도로 숙련된 전문인력 개발과 이들이 지닌 의학적 지식과 기술을 유지시키는 것이 국민들의 보건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인 것을 국가가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AMC의 ANZCA평가 참관일 제1일 오전에는 두 조로 나누어 두 개의 병원을 방문 평가하였는데, 나는 다른 두 명의 전문의와 AMC에서 나온 사무직원과 함께 Monash Medical Centre를 방문하였다. 이 병원은 몇 개의 병원의 마취과 전공의 수련을 통합, 관장하며 50명의 전공의를 교육하는 비교적 큰 수련병원이었다. 일정은 수련을 담당하는 faculty와 병원 행정 책임자 등을 만나 간단한 면담을 한 후, 그 병원에서 수련받고 있는 전공의와 펠로우를 만나 실제로 수련이 학회에 수련프로그램에 따라 이행되고 있는지 심층 면담을 하였고 건의 사항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전공의들의 전공의가 습득해야 할 각각의 수련항목이 너무 많다는 등, 또 수련 중에 이루어지는 평가 결과가 제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불만에서 자신이 관여하는 논문의 authorship, 새로이 시행하려는 학회의 정책에 이르기까지 허심탄회한 질문을 듣는 것으로 오전의 방문평가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학회 수련평가를 나오신 교수님들께 인사나 꾸뻑하고 묵묵히 자신의 일에 열중하는 우리나라 평가분위기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다. 돌아와서는 on-line 상으로 writing-board를 만들어 각 평가위원이 맡은 분야를 정리하고 첫날의 일정은 마무리하였다.

제2일과 3일은 ANZCA House를 방문하여 ANZCA의 Dean과 President를 비롯하여 각 학회 관계자 및 교육 담당자들을 만나 면담을 하면서 틈틈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취약한 지역에서 수련을 받고 있는 전공의들과 teleconference를 통하여 그들의 수련의 실제에 대해 면담을 하였다. 특히 이 부분은 전공의로서 평가에 참여한 오클랜드에서 온 Dr Christopher Duncan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평가 마지막 날 오전, 호텔 회의실에서 각자 분담하여 작성한 보고내용을 writing-board를 비춰보며 정리하여 preliminary 보고서를 마무리 하고 ANZCA House에서 학회 관계자들에게 총평을 한 후 보고내용을 확인 받고 평가를 마무리하였다.

수련프로그램 평가항목은 전문학회가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과 수련을 제공할 수 있는 조직과 기능을 갖추었나를 보기 위한 9개 항목(자료 I)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또한 수련 교과과정은 우리나라 전문의 자격요건위주의 전공의 수련교과과정과는 달리 의사가 갖추어야 할 의학적 지식과 술기뿐 아니라 기본 공통역량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의 전공의 수첩에 해당하는 portfolio에는 경험해야 할 증례를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on-line으로 개발되어 있었다.

이번 참관 중 인상 깊었던 점은 전공의가 학회 수련프로그램 평가에 참여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그는 처음 평가팀으로 참여 한다고 하였는데, 미리 제공 받은 질문 예문집을 내게 보여주며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면서 기대도 하고 의욕도 넘쳐 보였다. 전공의가 학회 평가에 참여하면서 허심탄회하게 평가자로 참여한 교수들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적극적으로 평가에 참여하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두 번째는 AMC에서 나온 사무직원의 전문성이다. Miss Porter의 평가업무에 대한 전문성은 보고서의 서론과 결론의 기본틀을 작성하고 평가 내용을 정리할 뿐 아니라 인쇄, 일정 조정, 회계업무, 식사 및 숙소 예약 등의 행정 및 사무업무를 보조를 하고 있었고 내게는 학회평가의 내용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방대한 양의 자료를 미리 읽고 준비하도록 우편으로 보내주었다.

세 번째는 ANZCA House로 마당이 있는 오래된 집과 현대식 건물을 연결한, auditorium을 갖춘 학회빌딩(사진1)이었는데, 복도나 회의실에는 역대 dean과 president의 사진과 초상화를 걸어놓고 로비에는 1800년대의 gasometer for nitrous oxide(사진2)를 전시하여 역사와 전통을 느끼게 하였으며 많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다. 우리학회 사무실에 달랑 3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것과 비교하면 많은 예산이 교육기관으로서의 학회 운영을 위해 책정되어 있음을 추정할 수 있었다. 또 한 가지 인상적인 것은 회의실 벽에 걸린 1970년대 말의 ANZCA President의 손의 주름으로 그가 적지 않은 시간을 ventilator없이 ambu-bagging으로 수술환자의 호흡을 유지시키면서 걸어온 전문가의 발자취와 의사의 길은 성실하게 환자를 위해 나의 본분을 다하는 직업임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하겠지만 우리나라도 좀 더 체계적인 전공의 교육과정을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에 관여하는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관심을 갖고 정부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진1)

(사진2)

TOP

우)140-470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길 10 연지드림빌 203호 Tel 02) 795-1591 | Fax 02) 795-1592 kimee@kimee.or.kr
COPYRIGHT(C) 2009 KOREAN INTERN OF MEDICAL EDUCATION AND EVALUATION CO., LTD. ALL RIGHTS RESERVED.